

예술부(藝術部) 결성 60주년 5지침(指針) 발표

하라다 회장 참석 기념대회

2022년 3월 15일



3월 8일, 결성 6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부 대회. 회합에서는 키무라 요시노부(木村偉宣) 씨가 기타 연주를 피로했다.(지난 13일, 도쿄도다기념강당에서) ©세이쿄신문사

결성 6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부(藝術部) 대회가 지난 13일, 스가모(巣鴨)의 도쿄도 다기념강당에서 상쾌하게 열렸다.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메시지를 보내, 한사람 한사람의 분투를 칭찬. ‘더욱더’라는 마음으로 예술과 인생에 승리를, 이라고 기대를 보냈다.

석상(席上)에서 부(部)의 5지침(指針)으로서,

‘사제(師弟)의 맹세를 관철(貫徹)하는 공전(共戰)의 예술부’

‘광포(廣布)의 제일선(第一線)에서 싸우는 용무(勇舞)의 예술부’

‘지역(地域)에 사회(社會)에 희망(希望)을 주는 환희용약(歡喜踊躍)의 예술부’

‘팔풍(八風)을 내려다보는 진금(眞金)의 예술부’

‘예술(藝術)과 인생(人生)에서 승리(勝利)하는 개가(凱歌)의 예술부’가 새롭게 발표

됐다.

회합에서는 코지마(小島) 문화본부장의 인사 후, 텔런트 히코마로(彦摩呂) 씨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고경(苦境)에 신심근본(信心根本)에 맞서는 가운데, 활약의 장을 넓힌 모습을 보고(報告).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보내는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말했다.

오오타카(大高) 예술부장은 5지침을 삶의 자세의 근간(根幹)으로 불박아 스승과의 맹세를 완수해 가는 인생을, 이라고 역설. 스기모토(杉本) 총합여성부장은 현재의 고난(苦難)과의 싸움이 반드시 자신의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강하게 기원하며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자고 호소했다.

하라다(原田) 회장은 흥미가 깊어지는 시대에야말로 평화(平和)와 인간주의(人間主義)의 불법철학(佛法哲學)을 체현(體現)하여 사회에 희망을 보내는 존재가 갈망(渴望)되고 있다고 강조. 가까운 곳에서부터 용기의 대화를 넓혀 자신의 인간혁명(人間革命)의 모습과 선(善)의 연대(連帶)의 확대로 '5·3'을 장식하자고 호소했다.